

한국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

윤준영¹ · 박관수^{1*} · 김세빈¹ · 이준우¹ · 성용주² · 이상진¹ · 박범환¹ · 장관우¹

¹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²충남대학교 환경소재공학과

A study on the direction of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forestry

Jun-Young Yoon¹, Gwan-Soo Park^{1*}, Se-Bin Kim¹, Jun-Woo Lee¹, Yong-Joo Sung², Sang-Jin Lee¹, Beom-Hwan Park¹, Gwan-Woo Jang¹

¹Department of Environment Forestry Resour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²Department of Biobased Material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Received on 12 December 2012, revised on 19 March 2013, accepted on 19 March 2013

Abstract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forestry sector has been implemented for about 60 years after the second world war. Forestry aid is getting important due to its role to play as a practical methodology of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Korea has conducted ODA in forestry in 22 developing countries since 2005. However its contents are mostly focused on environment conservation by plantation. In the other hands, the other donor countries try to eradicate poverty of people who are dependent on forestry,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etc in MDGs by means of ODA in forestry. Swiss, Germany, Japan, UK, and the other donor countries found out without taking account of forest dependent people who are supposed to manage 22% of developing countries's forest, forestry aid could not be successful. The direction of Korean ODA in forestry need to change in order to meet the current movement of International ODA. For this, Korea should develop various contents of forestry aids like CF (Community Forestry) project which the donor countries with long history of forestry aids have implemented in many ways.

Key words : ODA, Forestry, Forest dependent people, Poverty, Environment conservation

I. 서론

현대의 공적개발원조는 새천년 개발목표와 파리선언 등의 국제적인 약속에 기반을 두며 빈곤퇴치 및 기후변화 등 인류공동과제를 해결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적개발원조가 실시되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임업원조는 하나의 부문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약 60년의 오랜 임업원조의 역사동안 상당한 규모의 자본 및 시간이 소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황폐화 및 전용, 빈곤퇴치 문제 등은 여전히 개도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Reidar, 2000; Reidar, 2003).

현재 일본, 노르웨이,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주요 공여국

은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를 실시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임업부문을 ODA 컨텐츠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원조의 역사가 오래된 타 공여국과 비교하면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첫 번째로 원조방법측면에 살펴보면, 주요 공여국들은 임업정책자문 및 수원국의 행정능력강화와 조림과 같은 임업개발사업을 혼합하지만 우리나라가 추진한 사업의 대부분은 조림, 재조림을 통한 단순한 임업개발사업이다. 두 번째로 원조배분측면에는, 주요 공여국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및 중남미로 임업원조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시아에만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등 좁은 원조범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원조내용 측면에서는, 주요 공여국은 개발도상국의 산촌주민들의 빈곤문제해

*Corresponding author: Tel: +82-42-821-5743

E-mail address: gspark@cnu.ac.kr

결 및 환경보호, 기후변화대응과 같이 다양한 원조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임업부문 ODA는 대부분 주 원조목적인 빈곤문제를 배제하였고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정부가 원조금액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방향성이 단편적으로만 진행이 된다면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의 경쟁력은 약화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원조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 시급 하지만, 타 부문 원조사업에 비하여 한국의 임업원조에 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설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업원조를 살펴보기 전, 공적개발원조의 정의와 목적을 살펴보고, 타 공여국들에 의해 진행된 전반적인 임업원조의 경향을 알아본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임업원조현황을 파악하고 타 공여국들의 임업원조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II. 연구방법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OECD 공식 통계자료, KOICA 통계자료, 공여국의 ODA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임업원조와 관련된 논문 및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 및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공적개발원조의 경향은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원조형태와 예산규모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1973년대부터 2011년까지 공여국의 원조형태(원조목적별 코드, 수원국 대상,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기간, 원조 컨텐츠, 접근방법)과 예산규모를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결과와 한국의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 경향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공적개발원조

개발원조를 표현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해외원조(Foreign aid)는 자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용어는 다른 개념으로써 임업 OD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명확히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많은 역사에서 해외원조는 군사원조, 외국인 직접투자, 인도적 지원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Jeong, 2010). 세계사에 기록된 국익을 바탕으로 조건부(conditionality)로 실행이 된 군사원조의 예를 역사책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공적개발원조는 해외원조의 인도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방식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OECD/DAC)은 공적개발원조를 "국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도국(그리고 다자적 제도들)에 제공하는 자원"으로 정의한다(OECD, 1987).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일본, 서구 선진국들에 의하여 공적개발원조가 활발히 시행되고, 현대에는 파리선언 등의 국제사회의 약속에 의해 해외원조와 공적개발원조의 개념의 차이가 명료해 지고 있다(Table 1).

2.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

가. 주요 공여국의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

(1) 원조목적 별 코드

다음의 Fig. 1은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진행이 된 임업부문 원조목적별 원조금액 비율을 보여준다. 1970~

Table 1. The difference between Foreign aid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해외원조
지원 초점	인간 중심의 사회경제 체계 구축 공적개발원조의 출발점	사회경제체제 구축 후 삶의 개선 해외원조의 출발점
지원 형태	무상, 유상 및 다자, 양자 지원 비조건부 지원 추구	군사지원, 해외직접투자, 공적지원 조건부 지원추구
지원 방향	수혜국 중심	공여국 중심
지원 평가	OECD/DAC	-

출처: 정미경, 2010 *저자 일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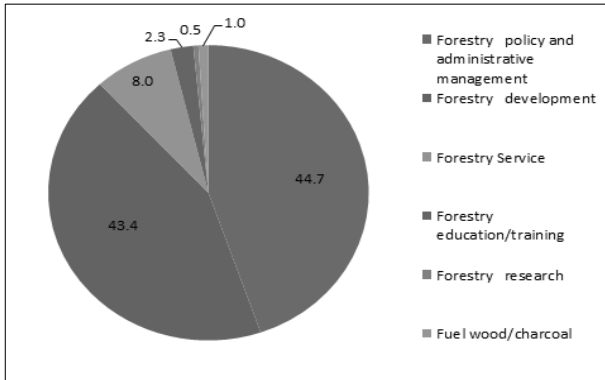


Fig. 1. The ratio of Creditor Reporting System from 2001 to 2011.

1990년대에는 임업개발(조림사업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OECD, 2000), 2001~2011년도에는 임업정책 및 행정경영이 44.7%, 임업개발 43.4%, 임업서비스 8.0%, 연료목 및 숲 생산 1.0%, 임업교육 및 훈련 2.3%, 임업연구 0.5% 순으로 나타났다.(Fig. 1).

(2) 수원국

다음의 Table 2는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 모든 공여국과 국제기구로부터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10개 국가를 보여준다. 아시아에 속하는 4개국은 상위 5안에 들었다. 그 중 인도가 126 백만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중국,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는 1973년~2011년까지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를 가장 많이 받아왔다.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 예산규모 1위인 JICA가 인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JICA는 원조목적별 코드에서 임업개발로 분류되는 조림복원사업, 생물다양성 복원 사업 등의 다양한 임업원조를 인도에서 진행하였다. 중국의 경우 역시 JICA로부터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독일,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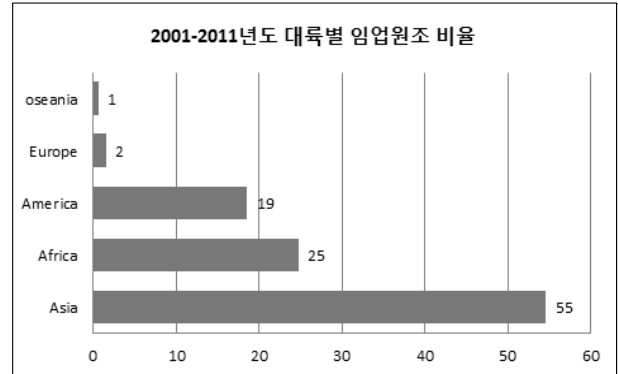


Fig. 2. The ratio of forestry aid by continents from 2001 to 2011.

호주, 영국 등으로부터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를 받고 있다. 대륙별(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로 지원된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 금액 비율은 Fig. 2와 같다. 아시아에 총 원조 금액 중 55%를 지원받았고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순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에 배정된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 금액은 1973~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OECD, 2000) 2001년부터~2011년까지는 총 원조금액의 25%를 차지하였다. 과거에 아프리카의 부정부패와 정부능력에 실망한 공여국들의 원조가 아프리카로 조금씩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였다(Fig. 2).

(3) 주요 공여국 사업내용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의 원조사업내용을 살펴보면 1) 빈곤퇴치, 2) 기후변화대응, 3) 산림보호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Table 3).

(4) 총 원조금액

다음의 Fig. 3은 2001년도부터 2011년도 까지 진행된 임

Table 2. Top 10 recipient countries of forestry ODA from 2001 to 2011.

Top ten by absolute value annual average US\$ million					
Rank	Country	Amount	Rank	Country	Amount
1	인도	126.4	6	카메룬	12.1
2	중국	91.9	7	탄자니아	10.1
3	브라질	55.3	8	네팔	9.9
4	베트남	31.3	9	온두라스	8.7
5	인도네시아	21.8	10	라오스	8.4

출처: OECD, 2012.

Table 3. Main forestry aid projects of Norway, Germany, and Finland.

Country	Project title	objective
Norway	CONGO BASIN FOREST FUND	-Alleviating poverty -Forest conservation
	Forest Sector Programme Armenia 2008	-Alleviating poverty
	Support to UN's Donor Fund for REDD	-Climate change
Germany	Income maintenance through sustainable forestry	-Alleviating poverty
	Programa de Conservación de Bosques / REDD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Climate change -Biodiversity
Finland	RECOFTC in the field of Community Forestry.	-Alleviating poverty -forest conservation
	NGO Support / Village Forestry Promotion Project, II phase	-Alleviating poverty
	NGO Support / Indigenous rights and culture in Adivasi forest	-Alleviating communities right
	NGO SUPPORT / PROTECTION OF BIODIVERSITY, LIVELIHOOD AND ECOLOGY	-Biodiversity -Alleviating poverty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 FCPF	-Climate change

출처: OECD/DAC 홈페이지, 저자수정.

업부문 공식개발원조 금액의 변화를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2009년 이후 원조금액은 급격히 상승하였다(2009년도 총 원조금액 570 백만 달러에서 2010년도에 1030 백만 달러로 증가). 노르웨이는 2010년도 총 원조금액의 약 41%가 넘는 금액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총 원조금액이 급상승 하였다. 노르웨이가 인도네시아에 약 1조원이 넘는 금액을 REDD+ 원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 한국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

(1) 총 원조금액

다음의 Fig. 4는 핀란드,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의 OECD/ DAC 회원국가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한 총 임업부문 ODA 금액의 평균과 한국의 원조금액을 보여 준다. 한국의 지원금액은 2006년에 1.5 백만 달러에서 2011년도에 3.7 백만 달러로, OECD/DAC 회원국들의 평균 지원금액은 18에서 54 백만 달러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2) 원조목적별 코드

다음의 Table 4는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한국에 의해 지원된 목적별 원조 코드별 원조금액이다.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과 같은 주요 공여국들과는 달리 임업개발이 총 원조금액의 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임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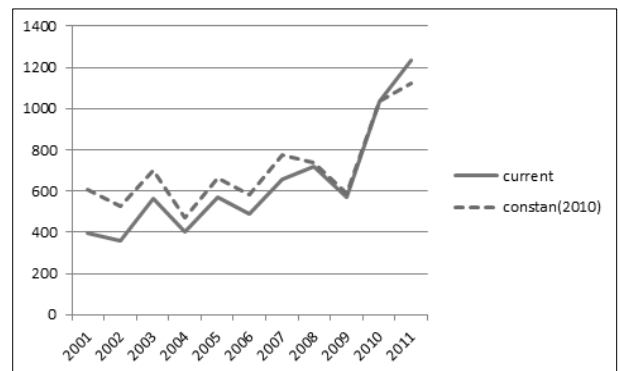


Fig. 3. The change of total aid amounts of donors from 2001 to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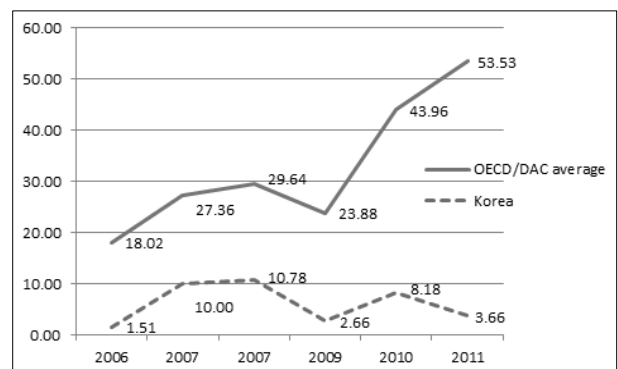


Fig. 4. The aid amount of Korea and the average aid amount of OECD/DAC donors (Unit; Million US\$).

및 행정경영(39%), 교육(5%), 임업조사(1%)순으로 나타났

Table 4. Ratio of Korean forestry aid by CRS from 2006~2011.

	2006	7	8	9	10	11	평균	비율(%)
임업 정책	-	9.8	2.7	0.3	0.3	1.2	2.4	38.8
임업개발	1.4	0.1	8.1	2.3	6.7	1.7	3.4	55.2
임업 서비스	-	-	-	-	-	-	-	-
임업 교육	-	-	-	0.1	1.2	0.5	0.3	5.2
임업 연구	-	-	-	-	-	0.3	0.1	0.8
연료목	-	-	-	-	-	-	-	-

* 2006년~2011년 까지 임업원조목적 코드 별 한국의 원조금액, 단위(백만 달러).
* 양자간/다자간 원조 포함.

Table 5. KOICA project type ODA in forestry in 2005~2008.

년도	국가	국별총액(100만원)	사업명
2005	중국	422,286,490	중국 북경지구 산림종합경영시범사업
	미얀마	116,794,260	미얀마 중부지역 산림녹화시범단지 조성사업
2006	중국	537,271,242	중국 북경지구 산림종합경영시범사업
	인도네시아	12,509,874	인니 산림 및 생태관광학교 능력강화사업
2007	중국	144,670,701	중국 북경지구 산림종합경영시범사업
	인도네시아	486,210,568	산림환경보전 및 생태관광 역량강화사업
2008	인도네시아	634,823,497	산림환경보전 및 생태관광 역량강화사업
	미얀마	477,369,420	한·인니 산림분야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사업
2009	인도네시아	4,347,746,760	중부 건조지역 산림녹화(양곤 북부 바간 양후 지역)
	인도네시아	4,347,746,760	한·인니 산림분야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사업
2010	인도네시아	702,552,166	인도네시아 한-인니 산림바이오매스 개발모델 협력사업('09~'11/400만불)
	중국	193,434,059	중부 건조지역 산림녹화(양곤 북부 바간 양후 지역)
2010	중국	193,434,059	중국 북경시 팔달령지구 산림보호시범사업
	인도네시아	4,347,746,760	한·인니 산림분야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사업
2010	인도네시아	4,347,746,760	인도네시아 한-인니 산림바이오매스 개발모델 협력사업('09~'11/400만불)
	미얀마	291,665,613	중부 건조지역 산림녹화(양곤 북부 바간 양후 지역)
합계	3국0기구	1,233,532,667	

출처: KOICA statistic, 2012.

고 임업서비스와 연료목 및 숲과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지원된 금액이 없었다.

(3) 수원국

OECD 통계에 따르면, 2006년-2011년까지 수원국 별 한국의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배분의 누적 총액수는 다음과 같다. 몽골은 총 공적개발원조 액수 중 약 33%(약 1,200 백만 달러)로 가장 많이 지원을 받았고, 인도네시아(26%), 중국(17%), 필리핀(13%), 미얀마(4.7%) 순으로 임업부문 공적개발금액이 배분 되었다. 총 23개국에 원조가 되었으며 지역별로 국가를 구분 할 시, 동남아시아(7), 동아시아(2), 중앙아시아(2), 남아시아(2), 중앙 아메리카(3), 남 아

메리카(3), 동아프리카(2), 중앙 아프리카(1), 남 아프리카(1), 그리고 오세아니아(1)에 지원이 되었다. 아시아 국가 중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에 지원된 금액은 2006년-2011년 누적 원조금액의 약 90%를 차지하였다.

(4) 사업내용

다음의 Table 5는 한국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한 사업을 보여준다. 사업명을 살펴보면, 주요 공여국인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이 진행한 임업부문 ODA의 사업내용과 다르게 ODA의 주 목적인 빈곤퇴치는 사업목표에서 제외되고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보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고찰

주요 공여국들의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와 우리나라 원조를 비교할시 도출 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임업원조 방식이다. 과거 주요 공여국들의 초기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은 조림사업, 임산업 공장 건설 등과 같은 단편적인 임업개발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적으로 산촌지역주민들의 수입, 불법벌채, 생태계파괴, 공무원들의 부패한 행정 능력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공여국들은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에 대한 원조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최근 10년 동안 과거 1973-1998년보다 약 2배 증가). 반면에 우리나라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는 2006-2011년 도까지 임업개발에 약 55%가 넘는 예산을 쓰고 있다. 수원국의 고질적인 산림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각 수원국에 적합한 임업정책과 행정관리를 임업개발, 교육, 연구와 같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즉, 하나의 원조부문에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SWAP(Sector wide approach programme; 섹터별 접근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SWAP이란 교육이면 교육, 보건이면 보건 등 각 섹터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정 분야에 관한 개발전략을 기초로 하는 접근 방식이다(Lee, 2010). 그 대표적인 예로, 네팔을 대상으로 스위스 및 영국에서 실시한 Community Forestry(CF)사업이 있다. 스위스와 영국은 네팔정부와 협력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CF에 대한 법적인 토지보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을 조언해주고 직접 조림사업과 주변 임산물시장을 확

대시킴으로서 CF를 전국으로 전파하였다. 사업결과로는 불법벌채 감소, 산촌지역사람들의 수입증대, 산림보호 등의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였다(Yoon, 2010).

두 번째는, 아프리카 원조에 대한 예산확대이다. 주요 공여국들은 아프리카의 정치적인 혼란, 부패 때문에 1993년부터 1998년 동안 전체 원조 중 13%만 배분 하였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정치적 상황의 안정과 함께 카메룬, 탄자니아 등의 아프리카 국가에 원조배정이 약 25% 정도로 증가 하였다. 아프리카가 산림파괴와 사막화, 가뭄 등의 기후 변화피해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사막화와 산림파괴로부터 발생한 토지황폐화로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Table 6).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막화와 산림파괴가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수원국의 대부분은 몽골,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를 중점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4개 국가만이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하였다.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의 대상국을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성공적인 원조사업을 진행한다면, 양국간 산림협력관계를 증대시키고 기후변화피해를 절감시키는 등의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원조내용 측면에서 빈곤퇴치,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등의 전 지구적 공통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및 남미, 아프리카 국가

Table 6. Top 10 countries of average forest area loss by years from 1990 to 2010.

국가	연평균 변화 (1990-2000년)		국가	연평균 변화 (2000-2010년)	
	1000ha/yr	%		1000ha/yr	%
브라질	-2980	-0.51	브라질	-2642	-0.49
인도네시아	-1914	-1.75	호주	-562	-0.37
수단	-589	-0.80	인도네시아	-498	-0.51
미얀마	-435	-1.17	나이지리아	-410	-3.67
나이지리아	-410	-2.68	탄자니아	-403	-1.13
탄자니아	-403	-1.02	짐바브웨	-327	-1.88
멕시코	-354	-0.52	DR 콩고	-311	-0.20
짐바브웨	-327	-1.58	미얀마	-310	-0.93
DR 콩고	-311	-0.20	볼리비아	-290	-0.49
아르헨티나	-293	-0.88	베네주엘라	-288	-0.60

Source: Jeong, 2012.

Table 7. Estimated distribution of forest ownership for selected categories.

구분	총 %			
	국유림		민유림	
	정부에 의한 관리	커뮤니티/ 원주민	커뮤니티/ 원주민	개인/ 회사
세계 산림	77	4	7	12
개발 도상국	71	8	14	7
선진국	81	1	2	16
열대국가	71	6	13	10

출처: White and Martin, 2002.

등의 수많은 빈민계층은 산림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 (Table 7).

노르웨이, 독일, 핀란드 등의 주요 공여국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빈곤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빈곤퇴치, 기후변화대응, 환경보호 등의 전 지구적 공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업원조에서 인간의 복지가 배제가 된다면 공적개발원조의 이상적인 목표에 적합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불법벌채, 화전 등으로 인하여 산림황폐화 및 산림전용, 생물다양성파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임업원조를 살펴보면 CF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컨텐츠와 타 부문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빈곤퇴치,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에 대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네 번째는 임업부문 ODA의 양적확대이다. 원조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원조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프로젝트 후에 대한 대비가 허술해 지게 된다. 현재 한국 ODA 규모의 한계를 생각해 볼 때 다른 나라와의 공동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예산에서 사업영향이 큰 사업들을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요 공여국과의 공동사업은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인지도와 사업영향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한국의 임업부문 공적개발원조는 임업정책 및 행정 자문과 임업개발사업이 적절히 반영된 사업으로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환경보전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한다. 또한 아시아에만 원조를 집중하는 것 보다 아프리카와 같은 최

빈국으로 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요 공여국은 산림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입창출을 향상시키고 복지와 사막화 방지, 기후변화대응과 같은 환경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국의 임업원조는 환경보전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다. 임업원조에서 인간의 복지가 배제가 된다면 불법벌채, 화전 등으로 인하여 산림황폐화 및 산림전용, 생물다양성파괴 등의 피해가 결국 발생 할 것이다. 선진국의 CF 원조 사업과 같이 다양한 컨텐츠와 타 부문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새천년개발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빈곤퇴치,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에 대한 적합한 사업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산림청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S211010L010000)’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고 문헌

- Jeong JS., 2010, The implication on aids of international society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Africa and Korean OD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sititue 2(2):95-126 [In Korean]
- Jeong MG. and DR. Kim, 2010, Motivations, Types, and Changes of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Asia: Sector and Agency-based Classification. Korean Association of Asian Study 13(2):115-141 [In Korean]
- KOICA, 2012, KOICA's aid statistics. assessed in <http://stat.koica.go.kr/> on 2 september 2012.
- Lee CW., 2011, New flow of international ODA and Korean ODA policy,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24(2):777-808 [In Korean]
- Lee HJ, 2010, A methodology of introduction for PBA in Korea, pp. 63 [In Korean]
- OECD, 1987, DAC Guiding Principle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p. 1.
OECD, 2000,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Forestry 1973-98, pp 7.
OECD, 2012, OECD/DAC's aid statistics. assessed in <http://stats.oecd.org/Index.aspx> on 1 September 2012.
Reidar P., 2000, Assistance to forestry: what have we learnt?, International Forestry Review 2(3):218-223
Reidar P., 2003, Assistance to forestry: Experiences and Potential for improvement. pp. 5-10, CIFOR Publishing,

Indonesia.
White A., A. Martin . 2002. Who owns the world's forest? Forest tenure and public forests in transition , Washington, DC: Forest Trends and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pp. 5
Yoon JY, Park GS, Kang HD, Kim SB, Lee JW, Lee, HG, Lee SJ, Park BW, Jang HS, and Jang HS, 2010, Analysis on the Status of Community Forest in Overseas, CNU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Vol 38(1):1-4 [In Korean]